

전남 8개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작년 123곳서 200억 매출

고용인원 267명

전남지역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 지난해 200억원이 넘는 매출 '대박'을 터뜨렸다.

전남도는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현지 실사를 벌인 결과 전남 8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23곳의 매출액은 212억원에 고용인원은 26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지난 2010년 75억원에서 3배 가장 급증했으며 고용인원도 166명에서 100명 가장 늘었다.

통신대의 컴스영농조합법인이나 주 친환경배를 저온살균 숙성시킨 배즙과 친환경 녹차삼푸를 생산, 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순천제일대의 상원엔지니어링은 전력산업과 IT기술을 융합시켜 보호계전기, 전력감시시스템, 고전압 수배전반 설계 및 제작 등에 나서 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목포해양대의 태우해양기술은 특

수선박설계와 컨설팅 전문회사로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청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3억원의 매출과 16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처럼 최근 3년동안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42개 기업 중 30개 기업이 도내에 정착하면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이들 기업들이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내 대학창업보육센터에 대해 100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설인철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점점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창업이야말로 좋은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창업자금과 대학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 창업교육, 대학벤처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창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겠다"고 말했다.

◇백화점 동네슈퍼 반사이익=대형마트와 SSM 인근 동네슈퍼와 백화점 식품관은 평소보다 손님들로 북적였으며 매출도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이마트 광주점이 문을 닫으면서 지하 1층 식품관 예상매체가 당초보다 18% 가장 높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식품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평소보다 늘었으며, 오후 3~5시 사이 매출이 1주일 전보다 30~40%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SM 첫 의무휴업이 실시됐던 지난 8일에는 식품관 매출이 전주 대비 40% 증가했다.

대형마트 인근 동네슈퍼들도 반사이익을 봤다. 체인점이 40곳인 영암마트의 경우 첨단점 등 대형마트 주변 점포들의 매출이 평소보다 20% 가장 증가했다.

영암마트 대표 김성진씨는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손님이 늘었다"며 "대부분의 점포들이 평소보다 매

동네슈퍼·백화점만 반짝특수 전통시장 "효과 더 지켜보아야"

광주 대형마트 14곳 의무휴업 첫 날

"소비패턴 변경" 일부 시민 불편 호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처음 시행된 22일 광주지역 대형마트 14곳과 SSM 16곳이 문을 닫았다.

광주지역 대형마트들은 매출손실을 만회할 만한 뚜렷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인근 동네슈퍼와 백화점 등 의무휴업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전통시장까지 파급효과가 미치지 못했다.

일부 시민들은 휴무일인지 모르고 헛걸음을 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백화점 동네슈퍼 반사이익=대형마트와 SSM 인근 동네슈퍼와 백화점 식품관은 평소보다 손님들로 북적였으며 매출도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이마트 광주점이 문을 닫으면서 지하 1층 식품관 예상매체가 당초보다 18% 가장 높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식품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평소보다 늘었으며, 오후 3~5시 사이 매출이 1주일 전보다 30~40%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SM 첫 의무휴업이 실시됐던 지난 8일에는 식품관 매출이 전주 대비 40% 증가했다.

대형마트 인근 동네슈퍼들도 반사이익을 봤다. 체인점이 40곳인 영암마트의 경우 첨단점 등 대형마트 주변 점포들의 매출이 평소보다 20% 가장 증가했다.

영암마트 대표 김성진씨는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손님이 늘었다"며 "대부분의 점포들이 평소보다 매

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 상인 '두고봐야', 일부 시민 '불편해'=전통시장이 얻은 반사이익은 크지 않았다.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에서 생선코너를 운영하는 이모(45)씨는 "오후들이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며 "아직까지 매출이 눈에 띄게 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부 상인들은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

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무휴업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광산구 송정시장 상인 유모(여·56)씨는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주차장 등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손님이 늘어나도 쇼핑하기 불편하면 다시 대형마트로 돌아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했다.

박현정(북구 두암동·42)씨는 "평소 대형마트를 다니던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떠나고 갑자기 시장으로 몰리지는 않는다"며 "시장에서도 편하게 쇼핑할 수 있게 주차장 시설 등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이 첫 시행된 22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홈플러스 동광주점을 찾은 고객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신세계 장학금 전달

광주신세계는 22일 유스퀘어 2층 동산아트홀에서 '지역인재 장학금 지급식'을 열고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인재 100명에게 장학금 1억여원을 전달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NH농협생명·손해보험 광주총국 영업 개시 광주3·전북1·제주1개 지점

NH농협생명 광주총국(총국장 이근법)과 NH농협 손해보험 광주총국(총국장 임정수)이 농협 광주지역본부 7층과 1층에 고객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NH농협생명 광주총국은 광주 3곳(광주·전남·무등)지점과 전북 1곳(전북지점), 제주1곳(제주지점) 등 5개 지점을 관할하며, 215명의 전속 FC가 활발히 활동하게 된다.

또한 광주총국 관내 지역농협 본·지점 102개소와 농협은행 지점 34곳에서도 NH농협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NH농협 보험사는 ▲영업점 밀착지원으로 영업점에 대한 교육확대 및 영업능력 강화 ▲농업·농촌 실정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을 통한 농업인 실익제고 ▲사업 규모 확대 및 건전한 운영 등으로 사업이익을 증대시켜 주주배당(지역농협)을 높이고, 경영성과를 지역농협과 공유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 공제사업은 NH농협 생명과 NH농협 손해보험사로 새롭게 출범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로또복권 (제490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7	26	29	40	43	4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860,234,161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74,837,007	29
3	5개 숫자 일치					1,599,318	1,357
4	4개 숫자 일치					50,000	65,961
5	3개 숫자 일치					5,000	1,126,965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주간 증시 포커스

1900선 2000선 초반 등락 실적개선 주도주 중심 대응

다음주 코스피의 흐름은 미국 경제지표와 주요기업들의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제너럴일렉트릭(GE)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게다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월별 경제지표, 1분기 국내총생산성장률 발표 등이 증시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 흐름이 연장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기선행지표가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경기회복 기조가 유호한데다, 스페인발 재정위기 우려감도 큰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다.

또 올 2월 이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를 비롯해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경기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진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 경기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증시에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급감한 상황에서 상승이나 하락을 결정짓는 뚜렷한 재료가 없어 지수 상승으로는 지난주와 비슷한 1900선 후반과 2000선 초반의 박스권 등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가 지난 2월 이후 박스권 하단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지만, 동 지수대에서 지지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이며 분위기 반전에 대비한 매매전략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코스피가 좁은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부진 및 실적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주가 양극화 및 변동성 흐름을 피해가는 어려움이 보인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IT와 자동차가 당분간 시장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5월 초 갤럭시 S3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 업종의 기대감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갤럭시 S3에 들어가는 대형 부품사와 함께 중소형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역시 꾸준히 높아갈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4월 들어 Dram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2/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관심대상이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이어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호한 실적을 시험하고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타이어 관련주들도 원재료 투입단가 하락에 따른 마진을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 또 다른 투자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24일~26일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광주시는 24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SWEET 2012(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12)'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6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호주·일본·독일·터키·중국·대만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선진국을 포함해 국·내외 10개국 190개사가 530

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회에는 현대자동차·금호전기·SPP 올존에너지·DMS·다쓰테크·금풍에너지·비손에너지·그랜드슬라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들을 비롯해 미국·스페인·프랑스·벨기에·사우디아라비아 등 27개국 180여 명의 국제 바이어들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장이 될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Therapy 화순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소외계층 없는 복지1번지 화순

어르신·다문화 가족 등에 '맞춤형 복지' 제공
일자리 창출로 생산적 복지실현 '행정력 집중'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 최우선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장수수당 지원, 장기요양보험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www.hwasun.go.kr